

6》 2016년에는 우리학교 위성이 달에?



8》 2014 스포츠 총결산



학사다이어리-2014학년도 2학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 기말시험기간: 12.15(월) ~ 19(금)
- 성적일력기간: 12.15 ~ 26(금)
-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2014.12.31(수) ~ 2015.1.5(월)
- ※ 성적정정이 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공시기간 완료 후에는 일체의 성적정정 불가

교무처, '강좌별 평균학점 B0 맞춰라'... 학생, '일방통행 구태' 반발

'성적평가협조요청' 이메일 논란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교무처에서 교강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성적평가협조요청' 이메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메일에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실험·실습 과목과 실기과정을 제외한 모든 강좌별 평균학점을 B0(평점 3.0)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평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

난달 5일 학장회의를 통해 결정된 '학사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비록 현행 학점표준화제도에 의한 성적 입력제한(상위 40%내외 학생만 B+ 이상 학점 부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특히 향후계획에 ▲대학전체 성적분포를 단과대학 평가에 반영 ▲강좌별 성적평가 결과 인사 및 재임용 자료로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겨 사실상 '강좌별 평균학점 B0'를 강제하고 있다는 평가다. A강사는 '성

주요 7개 사립대학 졸업생

졸업 학점 평균 (4.5점 만점 기준)

고려대	3.57
성균관대	3.54
연세대	3.48
한양대	3.41
서강대	3.35
경희대	3.34
중앙대	3.3

※ 출처: 대학알리미

적부여는 교강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임용 여부까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강사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반발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장회의에서 결정한 후 교강사에게만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진 과정 역시, 교강사를 통해 '성적평가제도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

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알음알음 퍼졌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준비위원회는 성적평가협조요청의 배경이 된 '우리학교 학

점표준화 현황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성적 가이드라인 통보를 철회하라는 공개질의서를 교무처에 보냈다. 총학 준비위원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3) 부회장 당선자는 "이처럼 중요한 학사과정의 변동을 한 마디의 상의도

▶3면으로 이어짐

총학·총여 '친 KHU' 당선 중선관위 '무효표 744표' 양산

국제캠 총학·총여 선거결과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177@khu.ac.kr

【국제】 경선으로 진행된 제47 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개표결과 '친 KHU' 선본의 김용석(화학공학 2009) 정후보와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됐던 잡음은 개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예술·디자인대학(예디)의 총여 투표함이 제대로 테이핑이 되지 않았고, 국제경영대학(국경)과 체육대학(체대)의 총학 선거 투표함도 제대로 밀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대와 예디의 투표함에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 3일 오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위원장이 순찰 중 발견됐다. 박 위원장은 개표 시작 전에 긴급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의 개표는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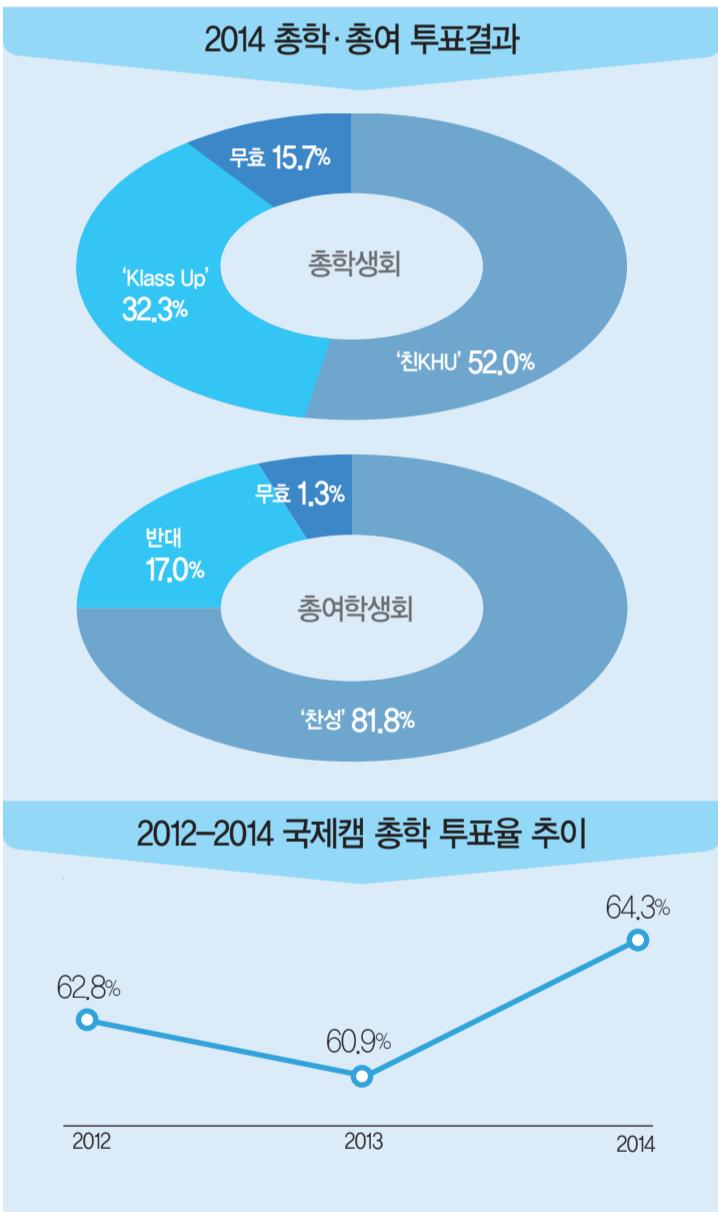
총학 선거는 전체 유권자 11,097 명 중 64.33%(5,601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친 KHU' 52.01%(2,888명), 'Klass Up' 32.31%(1,793명), 무효 표 15.68%(870명)로 '친 KHU' 선본이 당선됐다. 이에 총학 김 당선자는 "지난 4주간 학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린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내일이 기대되는 2015학년도를 위해 걸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여 선거는 전체 유권자 4,683명 중 63.76%(2,359명)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81.76%(1,914명)의 찬성으로 '친 KHU' 선본의 권미정(국제학 2013)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됐던 잡음은 개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예술·디자인대학(예디)의 총여 투표함이 제대로 테이핑이 되지 않았고, 국제경영대학(국경)과 체육대학(체대)의 총학 선거 투표함도 제대로 밀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대와 예디의 투표함에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 3일 오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위원장이 순찰 중 발견됐다. 박 위원장은 개표 시작 전에 긴급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의 개표는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시작됐다.

▶4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정경대학 유학생회 부정행위 제기한 '한뼘더' 선본 이동진 (경제학 2012) 정후보



"투표중 부정행위 여러 건 발견 재투표시 사퇴하겠다"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 정경대학 학생회 선거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와 신청됐다. 낙선한 '한뼘더' 선거운동본부(선본)에 의한 것이었다. 단순한 '선거불복'이었을까? 이의제기 내용에는 정경대학 학생회 선거와 함께 진행된 정경대학 유학생회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됐고, 관련 CCTV증거도 확보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에 '한뼘더' 선본 이동진(경제학 2012) 정후보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선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왜 선거 이후였나?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여러 번 벌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한두 번 정도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기든, 지든 '표차이가 작으면 재투표를, 많으면 주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CCTV에 잡혔던 정경대학 3층 투표소의 1시간 30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여러 건 존재함을 알게 됐다. 결국 고민 끝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됐다."

이 사람은 유학생회장 후보였다."

-왜 이 사실을 즉각 선관위에 제기하지 않았나?

"셋째 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기표소에 후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당시 정경대 앞 기표소 담당 선관위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당 선관위원이 침묵했다"

-선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왜 선거 이후였나?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여러 번 벌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한두 번 정도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기든, 지든 '표차이가 작으면 재투표를, 많으면 주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CCTV에 잡혔던 정경대학 3층 투표소의 1시간 30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여러 건 존재함을 알게 됐다. 결국 고민 끝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됐다."

▶5면으로 이어짐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범한 악(惡)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필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민교육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시민인가요? 어떤 사람이 시민인가요? 시민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을

한 후에 꼭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김선욱 옮김, 한

길사 펴냄)이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악행(惡行)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망 때문이기도 하다. 악행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흉악한 사람들이 벌이기도 하지만, '근면·성실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주로 저질러진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총리의 행태 등을 대표적인 악행으로 볼 수 있다.

관료마피아와 아베총리의 공통점은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앞세울 줄 아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들처럼, 타인(타국민)의 처지와 아픔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침사와 범죄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책속의 주인공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잘 보여주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한나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알림

이번 호가 2014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전문가 칼럼 연재 종료

일반노동자 필수상식 ⑤

아르바이트도 노동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일반노동자 경희대 분회
김재섭 분회장에게 들어본다.

▶7면



